탐 방 (주)에스씨에프(SCF) – 당진공장 준공

SCF 당진공장 준공을 통한 제2의 도약!

▲(주)SCF 당진공장 전경

1. 새롭게 태어난 에스씨에프(SCF)

지난 3월 22일 국내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주)에스씨에프(대표 김정인) 사료공장이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료생산에 돌입했다.

과거 사료곡물의 하역이 편리한 인천항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사료공장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도시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공장 이전이 가시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CF도 지난 1979년 인천시 검단면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면서 양축가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인천에도 도시화 등 변화의 물결속에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SCF 입장에서는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이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원료수송 등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개방화 등으로 수입 축산물이 밀려와 국내 축산업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존의 사료공장중 일부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을 앞세워 장기적인 비젼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정인 대표이사

SCF는 김정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진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직 사양가들에게 생산성이 높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한다는 일념하에 이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고 2003년 당진공장 진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도 김포를 비롯한 여러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던중 당진군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프로그램과 회사의 비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4년 충남 당진으로 이전을 최종 결정하고 2005년 건축허가 승인을 거쳐 그해 9월 내외 귀빈을 초청한 가운데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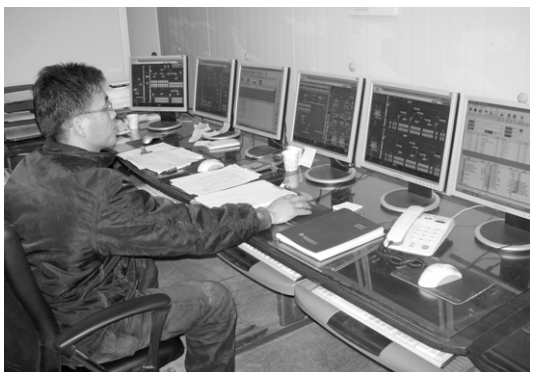
김정인 대표는 "당진은 육상과 해상운송의 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물류혁신에 크게 기여할 곳이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택했다"고 이전 배경을 설명하고 "본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축가들에게 교차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자동화된 최첨단 시설을 통해 대 양축가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정인 사장은 회사건립 초창기부터 본사에 근무하면서 SCF와 한 평생을 같이해온 동반자로 2003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아오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당진공장 준공식 장면

2. 대양축가 서비스에 한발 더

SCF는 축산사료뿐만 아니라 양어 등 특수사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품목만 150여종에 이를 정도로 국내 사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양축가들에게는 신촌사료가 SCF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올지 모른다. 30여년 동안 양축가들과 함께 해온 이름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9년부터 상장회사로 새로운 변신을 꾀한 신촌사료는 현대 추세에 발맞춰 상호를 SCF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양축가에게 다가갔다.



▲중앙제어장치(사료투입부터 제품출고까지 자동으로 제어된다.)

▲공장내 설치된 사료빈 광경(총 36개의 사료빈이 설치되어 있다.)

▲하치장 등으로 이동할 제품이 실리고 있다.

▲사료원료가 저장되는 사일로

에스씨에프는 지난 1972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일일 30톤 규모의 공장을 시작으로 업계에 발을 내 디뎠다. 1979년에는 현재까지 SCF의 주 생산 무대였던 김포군 검단면에 일 200톤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여 고품질을 앞세워 축산시장을 넓혀갔으며, 1988년에는 국내 최초의 특수사료 전용공장을 가동하면서 축산뿐만 아닌 양어사료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SCF는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부설 축산시험장은 물론 민간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수산양식 시험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양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0년에는 양축, 수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SCF의 존재가치를 높여갔다.

2004년에는 가루사료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원주공장을 인수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3. 국내 최초 교차오염 방지프로그램 도입

당진공장은 총 1만평 부지에 연면적 3천4백여평, 건축면적 2천여평으로 지어졌으며, 2005년 9월 착공식을 가진 이후 17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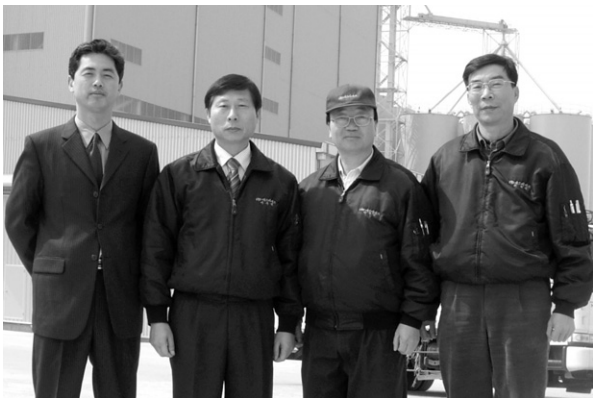
당진공장은 총 10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별 시설을 보면 원료창고 및 포장시설(1층), 제품건조시설(2층), 중앙제어실 및 생산본부(3층), 분쇄시설 및 수배전실(4층), 제품코팅 시설(5층), 제품저장시설(6층), 원료선정시설(7층), 제품선별시설(8층), 승강기 기계시설(9층)로 이루어져 있다.

SCF 당진공장은 총 제품빈이 3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펠렛라인 3대, E · P라인 2개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500톤(월 12,500톤, 년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총 150여종에 이르는 제품중 가공사료 비중이 80%에 이르며, 형태별 비율은 가루 20%, 펠렛

60%, E · P(양어 등 특수사료) 20%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SCF는 오리사료 30%, 육계사료 23%, 종계 · 산란계 사료 15%, 양돈사료 8%, 기타(양견, 양어 등) 24%로 양계사료의 비중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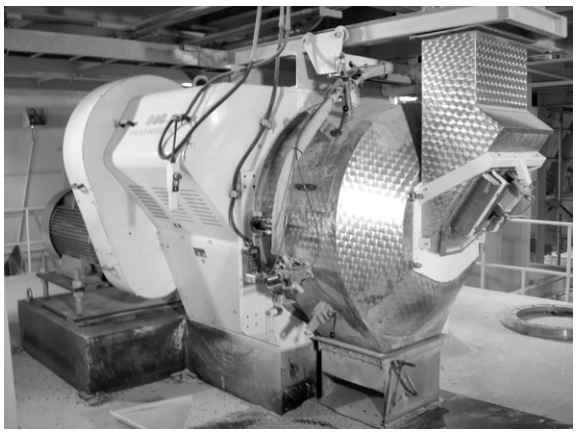
SCF 당진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HACCP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교차오염 방지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항생제 라인과 항생제 라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



▲사료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역들(좌부터 김응식 차장, 이두현 전무, 신주선 상무(공장장), 손익승 이사)

또한 공장의 모든 설비가 컴퓨터에 의해 전자동으로 제어되는 Factory Automatic System이 채택되어 생산효율화 및 정품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천공장의 경우에도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나 최종 제어단계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으므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걱정거리가 사라진 셈이다.

이두현 전무는 "우리 공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원료입고부터 출하까지 중앙제어장치를 통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만의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료의 오투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차오염 방지프로그램은 일반사료와 E · P라인 등 모든 제품에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완벽히 부응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사료는 무항생제와 항생제라인이 엄격히 구분되어 생산되어진다.(사진은 펠렛생산 라인 일부)

또한 SCF는 가공사료가 많은 특성상 Post Grinding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살모넬라 프리(Salmonella free)를 지향하기 위한 전초로 익스펜더(Expander)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사료생산은 물론 품질향상과 영양적 가치의 증가로 사료효율을 개선하여 사양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익스트루저(Extrudur) 라인은 오일을 최대 35%까지 코팅하여도 손에 묻어나지 않는 최첨단 기술인 배큠 코터(Vacuum Coater)를 적용하여 제품 품질을 수직 상승시키는가 하면 0.8mm의 제품사이즈까지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신형

콤비죤 드라이어를 국내 최초로 장착하는 등 공장으로서 겸비할 요인은 손색없이 갖추고 있다.

4. SCF와 함께 가는 물류의 중심지 당진

당진은 철강산업 등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市)승격을 바라보고 있는 당진은 당진항을 통해 모든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부터는 당진항을 통해 모든 사료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공장에 사무실을 두어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당진공장으로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당진은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역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인 대표이사는 "당진공장 준공에 힘입어 금년 SCF의 사료 생산량을 최소 18만톤까지 목표를 잡고 있으며, 외국시장 진출 계획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어 SCF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주)에스씨에프는 지금까지 구축한 탄탄한 기업 이미지와 첨단 설비 및 신기술로써 국내 축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 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